

지역 먹거리 물가 5년간 급등…고환율에 수입품도 ‘껑충’

2020년比 광주 25.4%·전남 26.4% 올라
사과 70%·수입 망고·바나나 30-40%↑
유통업체 “바나나 등 수입산 다변화 노력”

지역 먹거리 가격이 최근 5년 동안 큰 폭으로 오르며 체감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기후변화로 농수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데다 국내산을 보완하던 수입 식품 가격마저 고환율(원화 가치 하락) 영향에 출렁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가데이터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의 식품물가지수는 2020년을 100으로 기준했을 때 각각 125.4, 126.4를 기록해 최근 5년간 25.4%, 26.4%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지수가 광주 17.2%, 전남 18% 오른 것과 비교하면 식품물가 상승률은 훨씬 더 가파른 셈이다.

식품 가격 상승은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구매하는 품목이 중심이어서 체감물가와 가장 밀접한 생활물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5년간 생활물가는 광주는 20.0%, 전남은 20.7% 각각 상승했다.

광주의 경우 식품 가격 중 김은 52.7%, 계란 5



먹거리 가격이 지난 5년간 급등하면서 체감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7일 국가데이터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달 식품물가지수는 2020년을 100으로 했을 때 127.1로 27.1% 상승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대형마트.

7.8%, 식용유는 72.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산 소고기는 28.3% 올랐고 같은 기간 수입 소고기는 29.2% 상승하며 오름폭이 더 커졌다.

사과는 85.7%, 골은 무려 141.2% 급등했다. 상추와 시금치 등 채소류도 각각 45.7%, 39.9% 올랐다. 식품 외에 전기료와 도시가스도 각각 42.2%,

44.1% 상승해 가계 부담을 키웠다.
전남 역시 국수 52.0%, 식용유 65.1%, 깻잎 66.9%가 올랐고 사과·골 가격은 각각 58.2%, 88.4% 상

승했다. 국내산 소고기 가격은 9.7% 오르는 데 그쳤지만 수입 소고기는 40.8%나 뛰며 고환율의 영향을 고스란히 반영했다.

최근의 환율 상승으로 과일에서 고기, 생선 등 다양한 품목이 연쇄적으로 오르고 있다.

특히 수입 과일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2020년 1개당 5천원 수준이던 망고는 현재 7천 원을 훌쩍 넘어섰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집계에 따르면 이달 4일 기준 망고 가격은 광주 6천900원, 전남 7천400원으로 5년 새 각각 3.3%, 36.4% 상승했다.

파인애플 가격도 같은 기간 광주 49.9%, 전남 2.5% 오르는 등 큰 폭의 변동을 보였다. 바나나는 광주가 100g당 270원에서 388원으로 41.8%, 전남은 240원에서 358원으로 49.1% 상승했다.

이처럼 가격 변동성이 커지자 유통업체는 원산지 다변화와 품목별 판세 대응, 통합 매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환율에 대응하고 있다.

지역 이마트 관계자는 “바나나는 에콰도르·베트남·필리핀·페루 등으로 산지를 넓히고 있고, 소고기는 미국·호주 외에 아일랜드산까지 검토 중”이라며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면 협상력이 높아져 가격을 더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태호 기자

지역 주력산업 자동차 종사자 상생 논의 ‘눈길’

광주상의, 車 지원사업 성과 간담회
근로 불균형·현장 인력난 해소 기대

광주지역 주력사업인 자동차와 관련된 종사자들이 모여 상생 논의를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회관 3층 회의실에서 ‘2025년 자동차산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현대금형, (주)은혜기업 등 광주시에 사업장을 둔 현대 기아 협력업체 임직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올해 사업의 주요 성과 공유와 더불어 향후 지역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안전 장비와 시설 지원, 숙련 인력 채용 지원, 외국인 근로자 채용 지원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사업에 참여한 A기업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20년이 넘은 노후된 구내식당을 개

선했는데, 꽤 적극적인 식사환경을 이용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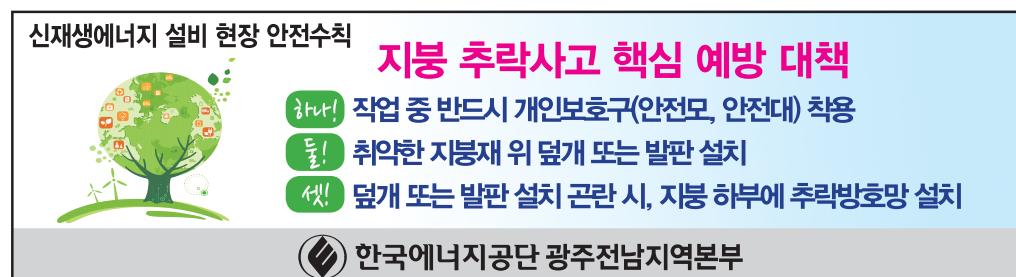
‘자동차산업 상생협약 확산지원 사업’은 광주시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지원하는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자동차산업의 인력난 해소와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기업 간 복지 격차 완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지난해 지역 자동차 기업과 근로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공동이용시설(기술사, 회장실, 휴게실 등) 개선 지원사업의 경우 전년 대비 사업 규모를 확대해 더 많은 기업이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자동차 분야 기업들을 대상으로 도약·체움·안착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신규채용의 활성화와 입직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했을 뿐 아니라, 재직자 대상 복지 향상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원 등도 함께 실시했다.

광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지역 자동차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근로조건 불균형을 완화하고 현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혀온 인력난 해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주력산업 전반의 균형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



광주상의, 내달 6일 2026년도 신년인사회 개최

지역사회 내수 경제 회복 의지 모아

이날 행사는 참석자 상호 간의 신년 하례를 시작으로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신년사에 이어 행사에 참석한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이 견배 제의와 덕담을 나누는 순으로 진행된다.

한상원 회장은 “병오년 새해에는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하나된 힘으로써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가 다시 한번 힘차게 비상하는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어가기 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임채만 기자

광주경총, 국립소록도병원 오동찬 원장 강연 성황

‘나의 가족’ 주제 금요조찬 포럼 성료

대통령 표장, 제2회 성전상, 보건복지부장관상 등 많은 수상을 했다. 방송은 MBC ‘칭찬합니다’, KBS ‘강연 100 도시’, CBS ‘세바시’ 등에 다수 출연했다. 강연은 ▲한센인아란 ▲한센병의 역사 ▲한센병의 차별과 편견에 대해 등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한센병의 차별과 편견에 대해 가족과 친족들과의 생이별, 교육 및 직장에서의 생활 금지, 지역주민들과의 연계된 삶 금지 등 감동적인 이야기로 마무리해 큰 박수를 받았다.

/임채만 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365일 동화같은 즐거움! 봉선동화시장으로 오세요!

봉선시장의 이모저모

새로워진 봉선시장 게이트

동화적 즐거움이 있는 시장

어린이 전통시장방문 프로그램

봉선동화축제 퍼레이드

봉선동화축제 퍼레이드

2018전국우수시장박람회 대통령상 수상

2018전국우수시장박람회 대통령상 수상

사랑의 김장나눔축제

사랑의 김장나눔축제

나눔물품 기부

나눔물품 기부

흥이 나고 부자되는 상인, 놀이가 있는 부담없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봉선시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TV 후원 : 광주광역시남구 광고문의 : 062)650-2099